

■ Digital & IT



올림푸스 PEN EP1

개논 파워샷 G10

삼성 NX

파나소닉 루믹스 G1

겉은 '복고' 속은 '첨단' 하이브리드 디카 인기

전문가용 디지털 카메라의 고성능과 소지하기 쉬운 콤팩트 디카의 장점만을 합한 하이브리드(hybrid) 카메라가 인기를 끌고 있다. 여기에 감성을 자극하는 아날로그적 디자인과 기능까지 더해져 소비자들의 눈을 즐겁게 해주고 있다.

하이브리드 카메라란 기존 일안 반사식(DSLR) 카메라의 고성능을 유지하면서 크기와 무게는 대폭 줄여 휴대성을 높인 신개념 카메라. DSLR 카메라 몸체 안에 비스듬히 기울어져 장착된 반사거울을 과감히 없애면서 크기 등을 줄인 데다 동영상 촬영까지 가능하다.

인기를 끌고 있는 하이브리드 카메라는 올림푸스의 신개념 렌즈교환식 디카 'PEN EP-1'. 아직 시판도 하지 않았지만 지난 14일 예약판매 5시간만에 1천대가 팔렸다. '펜'이라고 불리는 이 카메라는 DSLR 카메라의 대형 이미지 센서를 장착하고도 두께는 절반이 줄지만, 성능은 DSLR 못지않다. 렌즈 교환도 가

능하며 무게는 불과 335g. 1천230만화소의 4분의 3인치 고속 라이브 MOS 이미지센서를 장착했으며 ▲영상 처리엔진 트루픽 V 탑재 ▲초당 3장의 고속 연사와 HD동영상 촬영기능 ▲팝아트, 흑백 등을 표현하는 '아트필터' 기능 등을 갖췄다.

고성능 DSLR에 콤팩트 카메라 장점 결합 올림푸스 '펜' 시판 전에 1천대 예약 판매

여기에 필름카메라의 느낌을 살리는 스타일리쉬한 외관까지 더했다. 렌즈 사양에 따라 99만5천원~129만5천원.

파나소닉의 루믹스 'G1'도 렌즈 교환이 가능하다. 자동초점추적기능, 인공지능노출보정, 손쉽게 최적의 사진을 촬영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인텔리전트 오토 시스템 등을 탑재해 DSLR 카메라에 익숙하지 않

은 초보라도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 무게 385g에 가격은 130만원대. 특히 올림푸스와 파나소닉의 두 제품은 마이크로 포스트 시스템을 적용한 카메라로 렌즈 어댑터가 있으면 양사의 렌즈를 호환해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삼성디지털이미징도 하이브리드 디카 시장에 뛰어들었다. 삼성이미징의 미래 전략사업으로 하반기 출시될 'NX' 제품은 DSLR과 같은 방식의 'APS-C' 규격 이미지 센서를 적용하되 본체의 무게와 두께를 크게 줄였다. 가격은 미정.

삼성이미징 관계자는 "하반기에 출시될 NX 시리즈로 지난해 35%까지 떨어졌던 국내 시장점유율을

44%까지 끌어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하이브리드 제품은 아니지만 개논이 지난해 말 선보인 '파워샷 G10'은 필름 카메라와 닮은꼴을 표방했다.

필름 카메라의 향수를 그리워하는 소비자들을 위한 이 제품은 기존 디카가 촬영에 필요한 조건들을 버튼으로 조작해 설정하게 돼 있는데 반해, 제품 상단에 노출보정, 촬영모드, 감도 등을 설정할 수 있는 다이얼을 배치, 과거 필름 카메라와 유사한 조작감을 제공했다. 셔터음도 '찰칵'소리를 재현해 아날로그 느낌을 살렸다. 60만원대.

광주 금호월드 관계자는 "짧은 층을 중심으로 하이브리드 디카 제품의 선호도가 급증해 판매가 갈수록 늘고 있다"며 "특히 아날로그적 요소를 가미한 제품이 고급스럽고 엔틱한 분위기를 내 더 선호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광필성기자 kps@kwangju.co.kr



시계야 폰이야?
삼성전자 새롭게 선보인 세계에서 가장 얇은 두께(11.98mm)의 터치스크린이 탑재된 '울트라 슬림 위치폰'(S9110).

삼성전자는 세계에서 가장 얇은 11.98mm 두께에 터치스크린을 탑재한 '울트라 슬림 위치폰'(S9110)을 프랑스에서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11.98mm

세계서 가장 얇은 위치폰
삼성전자 프랑스서 출시

삼성전자는 세계에서 가장 얇은 11.98mm 두께에 터치스크린을 탑재한 '울트라 슬림 위치폰'(S9110)을 프랑스에서 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999년 세계 최초로 위치폰 'SPH-WP10'을 개발해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렸던 삼성전자는 두께가 20.5mm였던 최초 위치폰보다 8.52mm나 줄인 초박형 제품을 새롭게 선보이게 됐다.

삼성전자는 회로기판 사이에 주요 부품을 내장하는 삼성전자의 차세대 실장기술을 적용해 두께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울트라 슬림 위치폰'은 또 1.76인치 터치스크린과 위치폰에 최적화된 사용자환경(UI), 스크래치에 강한 강화유리 등을 통해 사용자 편의성과 견고함을 높였고 스테인리스 메탈바디에 가죽 소재의 시계줄을 사용해 고급스러움을 극대화했다.

아울러 심크를 통해 이메일 확인이 가능하며 스피커폰을 통한 음성통화, MP3P, 블루투스, 음성인식 등 다양한 기능을 지원한다. 가격은 약 450유로 수준으로 책정됐다.

/연합뉴스

해킹·개인정보 침해·불법유해 정보 대응 한국인터넷진흥원 공식 출범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과 한국인터넷진흥원(NIDA), 정보통신국 제협력진흥원(KIICA)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으로 공식 통합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3개 기관의 통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따라 통합 조직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이 23일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통합에 따라 인터넷서비스 활성화, 인터넷주소자원 관리, 해킹대응, 전자서명, 정보시스템평가, 개인정보 침해 및 불법유

해정보 대응, 해외진출 지원 등 인터넷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 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이에 따라 23일 오전 11시 서울 송파구 가락동 신청사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원장에는 김희정 전 국회의원이 선임돼 3년간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기존 3개 기관의 3실 8단 3센터 1사무국 44팀 조직 가운데 중복되는 경영지원기능 등을 통합, 4본부 1센터 7단 39팀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본부장제를 도입했다.

/연합뉴스

광주수원 국민임대

6,8단지 1,942호

·접수 7월 22일(수)~23일(목)

·장소: 주공 지역본부1층

대한주택공사

문의 062-380-0400-1,0408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1. 매우 잘 들립니다 2. 잘 들립니다 3. 잘 못 들립니다

국제보청기

본점 (062) 227-9940	손천점 (061) 752-9940
충장점 (062) 227-9970	목포점 (061) 262-9200
	익산점 (063) 851-2422

7월 무안 ↔ 북경 재 추항 기념

아시아나항공

OZ 341 무안 ↔ 북경 (14:50~16:15)

OZ 342 북경 ↔ 무안 (10:40~13:50)

북경 4일 : 469,000- (NO탑, NO음식)

발포탑 사탕 · 개인 짐세 · 중국 단체비자비용

광주 (062) 226-6070
광주광역시 동구 동구동 1-1-1 (062) 226-6070